

## 루푸스 신염에서 신대체 요법에 따른 예후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신장내과

강석희 · 황현석 · 형복진 · 전연주 · 이소영 · 김용수 · 박철휘 · 최범순 · 양철우

### Outcome of Renal Replacement Therapy in Patients with Lupus Nephritis

Seok Hui Kang, Hyeon Seok Hwang, Bok Jin Hyoung, Youn Joo Jeon, So Young Lee  
Yong Soo Kim, Cheol Whee Park, Bum Soon Choi, Chul Woo Yang

Division of Nephrology,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목적** : 루푸스 신염으로 만성신부전이 발생한 경우 신대체요법을 시행하게 되는데 각각의 치료법에 따른 생존율이나 예후에 대한 보고는 미흡하다. 본 연구는 루푸스 신염으로 만성신부전이 발생한 경우에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이식을 시행한 환자들의 생존율을 비교하고 다양한 질병의 발병률을 비교하였다.

**방법** : 1990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서울성모병원에서 루푸스 신염으로 만성신부전이 발생하여 3개월 이상의 신대체요법을 시행한 3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환자의 성별, 나이, 진단시기, 생존율, 감염, 악성종양, 심혈관 질환, 정형외과적 합병증, 출혈, 루푸스 악화, 당뇨, 고혈압, 시술과 관련된 합병증을 비교하였다.

**결과** : 대상환자 39명중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이식을 시행한 환자는 각각 16명, 8명, 15명이었고 만성신부전으로 신대체요법을 시행한 나이는 각각  $35 \pm 11.6$ ,  $39 \pm 8.8$ ,  $32 \pm 8.2$ 세였으며 평균 생존기간은  $58 \pm 63.2$ ,  $55 \pm 38.7$ ,  $78 \pm 46$ 개월 ( $p=0.217$ )이었다. 감염의 발생률은 7명 (43.8%), 2명 (25%), 9명 (60%) ( $p=0.318$ )이었으며 악성종양 발생률은 2명(12.5%), 1명 (12.5%), 3명 (20%) ( $p=0.856$ ), 심혈관 질환 발생률은 3명 (18.8%), 1명 (12.5%), 0명 (0%) ( $p=0.236$ ), 정형외과적 합병증 발생률은 0명 (0%), 3명 (37.5%), 2명 (13.3%) ( $p=0.027$ ), 출혈 발생률은 5명 (31.3%), 0명 (0%), 0명 (0%) ( $p=0.017$ ), 루푸스 악화는 6명 (37.5%), 4명 (50%), 1명 (6.7%) ( $p=0.037$ ), 시술과 관련된 합병증 발생률은 3명(18.8%), 6명 (75%), 4명 (26.7%) ( $p=0.032$ ), 당뇨병의 발생 또는 악화를 보인 경우는 1명 (6.3%), 0명 (0%), 2명(13.3%) ( $p=0.593$ ), 고혈압의 악화 또는 발생은 5명 (31.3%), 3명 (37.5%), 8명 (53.3%) ( $p=0.488$ )였다.

**결론** : 일반적으로 루푸스 신염이 만성신부전으로 진행되는 경우 루푸스의 질병 활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각각의 신대체요법에 따른 차이를 연구한 보고는 미흡하다. 본 결과에서 루푸스 신염으로 신대체요법으로 신이식을 시행하는 경우에 루푸스 악화가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통계적 의의는 없으나 생존률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에 루푸스 신염의 다기관 연구를 통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Key Words** : 루푸스 신염, 신대체 요법, 예후

Lupus nephritis, Renal replacement therapy, Outcome